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롬 5:1~5

지난주까지 1~4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 방법 등에 관해서 바울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긴 해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그 구원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경험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무엇인가를 얻은 경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익숙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3, 4년 지나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고마워서 그저 믿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도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4천년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결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결과에 대해 로마서 5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공짜로 받은 사람이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 평화 - 관계의 회복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평화(peace with God)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아니었다면 화평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관계,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 화목된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생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부가 싸웠다가 화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 집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란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란 부서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서너 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자랐던 부분을 찾아다 끼워 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방에 들어가 보면 침대 위에 인형이 널려 있고 잘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마음이 좋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란 다름 아닌 제 짝을 찾는 것입니다. 딱 맞는 것입니다. 뒤틀려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국가를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회사를 봐도 평화롭지 않고 집안을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다 제 멋대로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마음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다 칼을 들이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관계가 깊은 평화를 다 빼앗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생애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의 관계

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선 마음이 안심됩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역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마음에 깊은 안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롬5:1에서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평화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면 어리둥절합니다.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69장 중에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란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그렇게 얻어맞고도 밤 1,2시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2)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

두 번째 축복과 특권은 은혜 생활입니다. 5장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과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적인 생활에 들어가 있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자”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우리 가운데 있을 지어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 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영화관에 공짜로 들어가거나 공짜로 저녁 한 끼 얻어먹으면 괜히 미안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황송합니다. 누릴수록 미안합니다. 가질수록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떳떳하게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 차지한 위치 등을 가지려고 싸우고 빼앗으려 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큼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밥을 많이 먹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때 한 친구가 와서 밥 더 먹으러 가지고 하면 무어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시편 23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만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또 먹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꾸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와 흘러넘칩니다. 이것이 은혜 생활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또 그러한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질 줄 몰라서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2절 끝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이며 둘째는 ‘즐거워 하느니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묻고 싶습니다. 왜 사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돈 버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기 낳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공부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방황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성공하는데 큰 가치를 둡니다. 이런 가치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건강, 더 많은 소유, 물질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가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고상한 가치도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 합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절대 목적입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애의 목표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광’이란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함 안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며 내 몸을 부숴 가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몸을 다 녹여서 그분의 영광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학생은 절대 그 돈으로 노래방에 가거나 사탕 사 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해서 조금 더 모읍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서 부족분을 채웁니다. 계속 모아서 등록금을 다 채웁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등록금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먹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가난한 자에게도 주고 선교비도 보내지만 다른 곳에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데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것을 어떻게 보내고 쓸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살던지 무엇을 하던지 내가 가진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즐거워한다’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앞 구절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노래가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만 나면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몸이 흔들립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하라고 해도 잠 안 자고 합니다. 너무 졸으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사실 피곤하기는 하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목회 사역이 무척 좋습니다. 누가 저더러 목회하지 말라고 하면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밥을 먹지 않아도 살고, 무인도에 가도 삽니다. 주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 고난의 특권, 희생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안 누리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제한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4) 환난 - 소망의 시작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과 특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 절망 속에서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23~27에서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한 번 겪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돌로 맞고 오해 당하고 고통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생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석 달이라도 좋으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가 내 집에서 밥 해먹고 커피를 끓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외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데니스 레인, 준 레인 선교사님이 국제 선교 단체 OMF에서 사역하시다가 30년 만에 은퇴하셔서 조그마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속 선교 단체 본부와 후원자들에게 의해 얻은 집인데 한번 저희 부부가 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남부 어느 한적한 곳이었는데 정말 조그맣고 단칸방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집을 얼마나 아끼자기 하게 꾸며 놓으셨는지요. 그 부부에게는 그 집이 30년 만에 처음 얻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집 짓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 환난을 겪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개인의 삶으로 보서는 신학자이며, 지식인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진 환난을 겪으면서 배운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벽,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는가 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냅니다. 환난을 겪고 참고 또 참고 또 환난을 겪고 또 참고 고통을 겪고 또 참고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소유물이 적어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살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해 지기 시작

합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다른 불순물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눈이 띄어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는 땅에 살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의롭고 올바른 삶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보석을 발견해 냈습니다. 인생의 보석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백일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됨이니”

하나님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성령’과 ‘사랑’입니다. 성령의 생활을 하십시오.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생활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생활에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